

데스크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국부국장

“우리는 (일본과 싸우다) 죽을 것임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는 편이 훨씬 낫소.”

1907년, 영국 ‘데일리 메일’ 특파원 프레데릭 아서 맥켄지(1869~1931)가 대한제국을 방문해 직접 의병을 찾아 나섰다. 어렵사리 조우한 한 의병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의병들은 화승총을 들고 결연한 모습으로 기자의 사진 촬영에 응했다.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선샤인’도 ‘오마주’로 같은 장면을 보여 주었다. 이름 모를 ‘아무개 의병’이 남긴 말 한마디는 당시 총을 들고 일어난 모든 의병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맞아 광주주일은 지난 1년간 역사적인 전라도 출신 인물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고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과 의향(義鄉)

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다양했다.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인물들이었지만 구한말 활동한 의병장들은 다소 생소했을 터. 영광 출신 후손 김용구(1861~1918)와 대극 이순식(1875~1909) 의병장이 대표적이다.

영국 기자는 왜 조선을 찾았나

영국 기자는 왜 1907년에 ‘은둔의 나라’ 조선을 찾았을까? 그해 7월에 일제는 헤이그 밀사건을 핑계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리고 8월에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해 해산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일어났다. 당연히 언론의 시각에서 격동의 취재 현장이었을 것이다.

1907년은 호남 의병들에게도 각별한 해였다. 그해 10월 30일에 호남 의병들은 장성 수연산 석수암에서 연합 부대를 결성했다. 바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이다. 성재(省齋) 기삼연을 대상으로 추대하고 도통령(道統領)과 참모, 종사(從事) 등 의병 지도부를 꾸렸다. 이때 영광 출신 유학자 후손 김용구 선생이 실질적 전투 지휘관인 도통령을 맡았다. 의병 부대는 독립적으로 활

동하다가 필요 시 협력하는 등 게릴라전을 벌였다.

앞서 같은 해 10월 16일, 일본 군대는 낙천 고광순 의병 부대의 자이드인 구레 연곡사를 기습했다. 10여년간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항일 활동을 펼쳤던 낙천 등 의병 13명이 이날 순절했다. 며칠 후 매천 황현이 연곡사를 찾아 낙천의 가묘 앞에서 곡을 하고 칠언시를 지었다. “우리처럼 글만 하는 선비들은 무엇에 쓸 것인가(我曹文字終安用)/ 명조(明祖) 의병장 고경명과 인후 부자를 뜻함)의 가풍을 이은 풍성(風聲)을 따를 길 없네(明祖家聲不可當)….” 매천 역시 3년 뒤인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음독 자결한다. 초야에 묻혀 책만 읽은 선비나 총칼을 든 유학자나 나라를 향한 단심(丹心)은 모두 한결같았다.

학생들에게 의병 정신 교육을

영광문화원에서 지난 2016년 펴낸 ‘영광군 인물사 1집-영광의 인물’에서 당시 호남 의병들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한다.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의병과 일본군과의 알려진 전투 횟수만 해도 약 2700회가 되었고, 참가 의병들이 약 14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항일

의병 투쟁은 전국적으로 활발했는데, 특히 전라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항일 의병들 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60%가 넘었고, 전투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격렬했다.”

크게 전라도를 규정하는 3대 키워드로 흔히 ‘예향’(藝鄕)과 ‘문향’(文鄕), ‘의향’(義鄕)을 꼽는다. 그러나 후손 김용구와 대극 이순식의 의병장이 생소했던 이유는 교과서나 대중적 역사서에서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고에서 각 지역의 의병, 또는 호남 의병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영광군과 광주일보, (사)지역미래연구원 등이 함께 마련한 ‘영광 의병장 청소년 캠프’가 좋은 사례이다. 임진왜란과 구한말에 활동한 호남 의병장과 무명 의병들의 스토리는 ‘미스터 선샤인’같은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이기도 하다.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인 올해는 김용구 의병장이 순절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새해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전라도 정명 천년’ 이후에도 전라도의 역사는 계속 쓰여진다. / song@kwangju.co.kr

社說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 펄펄 끓을 때까지

너도나도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다. 입 달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일까. 올해 광주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썩렁 얼어붙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을 시작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9캠페인’은 73일 동안 모금액 53억 49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온도탑 상승 속도는 올해 유독 더딘 편이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눈금이 1도씩 올라가는 데 현재 겨우 25도를 넘어선 정도여서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 이웃에 대한 지원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큰일이다. 모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진 탓이 클 것이다. 기업도 개인도 경제난을 겪으면서 기부 한파

가 몰아닥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의 통 큰 기부가 크게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기부액을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 기업들이 많아졌다.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의 손길이 절실하다. 경제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한다. 서로 돕고 나누다 보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떠올려야 할 때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소외 계층은 이럴 때 더욱 추위를 느낀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나눔을 실천했으면 한다.

굳이 큰돈이 아니어도 좋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라도 모금에 동참했으면 한다. 고단한 삶에 지친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작은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다. 그리하여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에 훈훈한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마침내 100도로 펄펄 끓을 수 있도록 하자.

무등산 자락 난개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인 광주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카페의 주차 공간 확보나 주택 단지 및 농지조성 등을 위해 임야를 마구 훼손하고 산자락을 깎아 내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는 얼마 전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 인근 임야를 훼손한 카페 사업자 A씨와 농장 경영주 B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상업단지인 산수동 7-7번지 일대 부지에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전망대 등을 조성한 뒤 방목객이 급증하자 허가 없이 임야 150㎡를 깎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차장과 임도를 만든 혐의다.

상업단지 건너편의 산자락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농장주인 B씨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1만 8012㎡의 산지를 계단식으로 깎아 내린 것이다. 신앙파크호텔 맞은편 산지에도 최근 지하 2층·지상 3

층, 단독주택 9동 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되며 수십 년생 나무 20여 그루가 베어졌다. 동구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한 건축주는 호들갑지 않게 또 다른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이 일대에 상업단지나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이 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 및 쓰레기 투기 유발로 생태계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동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다. 근시안적인 행정이 난개발을 부르고 있는 셈이다.

국립공원이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무등산은 광주 자연 자원과 생태계의 최후 보루다.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 무차별 개발로 황폐화하는 것을 방지해선 안 된다. 광주시와 동구는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의와 난개발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은폐칼럼

소유욕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된다



심명섭 행정학박사·대한문화작가회 회장

무술년 새해가 밝은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닷새 뒤면 기해년 새해가 밝아온다. 이와 같이 해가 가고 해가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건만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허무한 생각이 든다. 며칠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또 한번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날이다.

겨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전 국민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명 패딩이라는 두툼한 잠바다. 패딩을 입고 다니면서 이를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

람들이 입을 그런 옷인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도대체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상당한 금액이 적혀있었다. 순간 너무 놀랐다. 그 옷을 입으면 자체적인 발열 작용이 일어나서 몸을 데워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비싼 옷들이 날개 돋힌 듯 잘 팔리고 있고, 유행에 따르기 위해 패딩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겠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산다고 한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중에서 저가의 패딩을 구입해서 입어도 추위를 견디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지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더 우월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비싼 것을 골라서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심하다. 패딩의 가격이 따라서 친구들의 빈부의 척도를 판단하여 가난한 친구들은 멀리하고 부유한 친구들은 가까이 한다고도 한다.

최근 청소년들 중에 좋은 패딩을 입은 친구에게 빌려서 입다가 돌려주지 않기도 하고, 또 빼앗아서 입고 다녀 범법자가 됐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렇게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산다.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것도 고통 중의 하나이다. 이 욕심과 탐심은 하늘에서 황금으로 된 비단이 몇 날 며칠 떨어져도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고 한다.

‘가지고 싶다’는 소유욕은 매 순간 발생한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어서 생기는 만족감은 얼마가지 못한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이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 한다는 사실을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 본능이기 때문에 추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무절제한 본능 추구의 결과는 파산이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본능의 억제 가능 여부이다. 본능만을 추

구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본능을 억제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삶을 영위해나간다.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으로 추구하는 개성은 획일화될 수 있지만 자신을 가꾸는 내적인 개성은 누구도 따라 하기 힘들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유독 누군가 눈에 띄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뛰어난 언변일 수도, 성실한 행동일 수도 있다. 물론 타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러한 능력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진정한 개성으로, 획일화된 세상에서 나 자신이 나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무기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고 했다.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취해야 한다. 하지만 나에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갈망과 탐욕은 새해에는 버렸으면 한다.

기고

이제 ‘광주문학관’이 보인다



임원식 (사)광주문인협회장

문화의 중심을 지향하는 광주에 아직도 ‘문학관’이 없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 이유를 지역 문학 단체들끼리의 갈등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일찍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꾸려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였지만, 2013년 당시 추진위원회가 부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면서 결국 건립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문학 단체들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당시 추진위원회가 상식을 벗어난 일탈 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 불행한 사건은 그 이후 광주시의 문학관 건립의 지지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불씨가 꺼져 버린 광주문학관 건립은 2017년 광주의 대표적인 문인 단체인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축이 되어 언론계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위원

회’를 결성하면서 다시 불씨가 시작됐다. 추진위원회의 곧바로 지역 문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문학관 추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만여 명이 넘는 문인과 시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광주시, 광주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에 전달하여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광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문학관 건립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해 신속한 건립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표출된 용역 최종 보고회는 그동안 검토된 14곳의 후보지 중 광주 북구 각하동 ‘시화 문화마을’을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마복공원의(2순위), 상무소극장(3순위), 지원배수지(4순위) 등 네 곳에 대하여는 광주시

에서 이후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문화적 환경과의 적합성, 비용 등을 따져 보고 관련 단체, 문인, 해당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문학관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도시 광주 시민들과 광주의 문학인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염원해 왔던 광주문학관은 이제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전문가 그룹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짜내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광주만의 특성을 갖춘 문학관을 탄생시키는 데 진력해야 한다. 물론 광주문학관에 어떤 바람직한 콘텐츠를 담아낼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광주문학관은 아시아적 가치, 광주의 역사, ‘광주 정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無等鼓

최근 영화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됐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다. 진주만은 하와이 오후루 섬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 함대 주력 기지다.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에리조나호 등 함선 18척이 손상되거나 침몰했고, 180여 대의 비행기가 격추됐다. 군인 사망자 2300여 명을 포함해 3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에리조나호가 침몰하면서 1102명의 군인이 구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군사 대국화 약속을 드러내고 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이 방어에

진주만

서 다시 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또 미국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항공모함 도입과 미국의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인 F-35 100기를 추가 구입하면서 재무장의 합리화를 펴고 있다.

미국은 지금 무기 장사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미국 국민도 진주만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간 젊은 이들의 절규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립원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국립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